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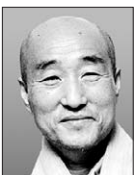
일 주 문



용성 조사 수륙천도 방생법회 법문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구미 아도 모래원(주지 환희)이 2월 11일 봉행한 용성조사 수륙천도 방생법회에서 증명법사로 법문했다.



10·27 사무실 현판식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장 원학 스님은 2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현판식을 봉행한다.



26사 호국천마사 낙성
군종특별교구장 일민 스님은 2월 7일 26사단 포병여단 호국천마사 신축법당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전통불교문화원 초대 원장 임명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2월 5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 초대 원장에 임명됐다. 사무국장에는 우봉 스님(수택사)이 임명됐다.



해사 졸업법회서 법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2월 18일 진해 해군사관학교 호국사에서 63기 졸업반 불자 생도들에게 무사입관을 격려하며, 입교를 축하하는 법문을 했다.



대구경실련 대표 선출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유가사주지)은 2월 6일 대구경실련 정기총회에서 신인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청계사 문화재 합동소방훈련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1월 17일 경내에서 의왕시, 의왕소방서로부터 청계사 소방차량을 무상 양여 받고, 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을 펼쳤다.



논산훈련소 육사 수계법회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2월 28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진행한다.



제6회 달마오픈 스노보드 챔피언십
용문사 주지 호산 스님은 1월 30일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제6회 '달마 오픈 스노보드 챔피언십'을 개최했다.



'음악, 법의학자 만나다' 테마연주
니르바나 솔리스트 앙상블 강경진 단장은 2월 17일 오후 8시 금호아트홀에서 '음악, 법의학자를 만나다-차이코 프스키 편'을 개최한다.

“세상살이 나아질 때까지 불사 중지해야”

법정 스님 길상사서 동안거 해제 법문

2월 9일 겨우내 석달간 집중 수행을 마치고 중생에 회향하는 동안거 해제 날. 길상사 前 회주 법정(法頂·77·사진) 스님이 서울 성북동 길상사(주지 덕조)에서 해제 법문을 설했다.

복은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복 받을 행중, 복 받을 마음을 지어야 합니다. 순간순간의 삶이 복 받을 만한가를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저는 평소 시간의 덧없음을 관념적으로 알았고 또 경성으로 들었는데 지난 겨울 눈병을 앓으며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했습니다. 안약을 처방받았는데 한 가지의 약은 1시간 간격으로 넣어야 했습니다. 안약 넣는 시간을 챙기다 보니 1시간이 어찌나 빠르던지 모래를 손에 쥐었을 때 손사 이로 모래가 빠져 나가는 것처럼 술술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의 덧없음을 인식했으나 시간과 몸을 부딪히보니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또 촛살같이 빠져나갑니다.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일일일야 만사만생(一日一夜 萬死萬生)”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밤과 하루 낮에 만 번 죽고 만 번 산다는 뜻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산다면 시간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무가치하게 보내면 시간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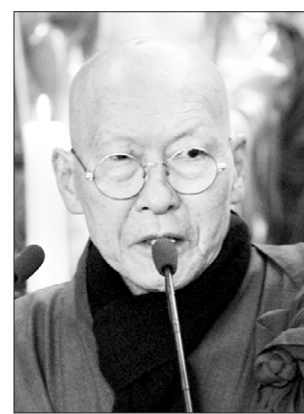
한해의 시작부터 연체살인과 용산참사의 피로 얼룩진 새해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끔찍한 소식을 반복해서 들으면 의식 속에 어두운 잠재의식이 생깁니다. 오고 가는 것들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도 볼 것은 보고, 들을 것은 들어야 합니다. 또 말에서도 할 말과 할 필요 없는 말을 잘 가려서 해야 할 것입니다. 밝고 아름답고 착한 소식으로 착하고 복된 순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지금 이곳(성북동 길상사)에 처음 절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설 뜨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 신심 있는 불자들과 주지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로 지금의 번듯한 도량이 세워졌습니다.

흥청망청하는 절보다는 결손(缺損)한 절이 돼야 합니다. 지금 절은 넘치기 직전의 절이 돼 버렸습니다. 신도들이 말합니다. ‘절에 와서 집 부리고 가려했는데 도리어 집 가지고 갑니다’고 말이에요.

법회(法會)는 법다운 모임이 돼야 합니다. 법문을 듣고 법문의 내용을 차분히 음미하면서 마



음에 답해야 합니다. 법회 끝에 하는 돈 이야기는 법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경제 위기로 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살이가 나아질 때까지 불사는 중지돼야 합니다.

종에 금이 가도 좋은 소리가 납니다. 종소리에 간절한 염원이 얼마나 담겼는가 중요합니다. 간절한 염원을 담는다면 금이 강종에서도 그 염원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상연 기자

봉암사 국제선센터 설립

문경시와 양해각서 체결한 함현 스님

“한국불교가 세계 정신문화의 중심이 되려면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수행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보다 더 큰 회향이 있을까? 겨우내 은산혈벽을 깨우는 용맹 정진을 쉬는 동안거 해제일에 한국불교에 큰 경사가 있었다.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사진)은 2월 10일 문경시(시장 신현국)와 국제선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함현 스님은 “외부시설이 들어 서면 조계종 특별선원인 봉암사의 수행환경이 훼손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고 말해, 무엇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봉암사의



수행 환경이 지켜지게 된 것에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주지직

은 대중에게 개방할 요망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지금은 봉암사 전체가 폐쇄됐지요. 이번 토지매입만 끝나면 당시의 계획이 실현되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함현 스님의 주지 임기는 4월이면 끝난다. 하지만 스님은 “여기까지가 내 할 일”이라며 후임 주지스님이 정해지는대로 모두 인수인계할 것이라 말했다. 주지 소임을 놓고 스님은 인도로 떠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소녀시대 윤아 동대 입학

원더걸스 선예, 가수 주, 배우 김수로도

인기가요 ‘지(Gee)’와 ‘노바디(Nobody)’로 유명한 소녀시대의 윤아(본명 임윤아)와 원더걸스의 선예(본명 민선예) 등은 3월부터 동국대 캠퍼스에서 만나게 됐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최근

“인기그룹 소녀시대의 윤아와 원더걸스의 선예를 비롯해 가수 주(JOO, 본명 정민주)가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연기재능우수자 전형에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2월 9일에는 SBS ‘일요



소녀시대 윤아, 원더걸스 선예, 가수 Joo, 영화배우 김수로. 일이 좋다. 패밀리가 떴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배우 김수로(본명 김상중)씨의 동국대 편 입학 합격소식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군종특별교구 계룡대 호국사 특별법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민)는 2월 1일 계룡대 호국사에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일민 스님은 육·해·공군 신도회장위원장 수여와 장군 진급불자에게 지휘봉을 수여했다. 노덕현기자

조계사 논산 호국연무사에서 방생법회



12553년 조계사 동안거회향방생법회(주지 세민) 1500여 사부대중은 2월 10일 동안거기도 회향을 맞아 충남 논산훈련소내 호국연무사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코파이 1만여 개, 글과 바나나 각각 4500개와 법당용 초가 전달됐다. 조동섭기자

동산불교대학 34기 신입생 입학식



동산불교대학(이장 인동임)이 2월 9일 동산불교대학에서 2009학년도 상반기 34기 신입생 75명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무전장 학정스님과 인동일 이사장, 이종현 동산본야회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연기자

청주청원불교연합회 광해 스님 취임



청주청원불교연합회 회장 광해 스님 취임법회가 2월 6일 청주 썸프리자에서 봉행됐다.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을 비롯해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남상우 청주시장, 반재일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철 충청시사장

조계종 원우회 신년 첫 법회 봉행



조계종 원우회 위원장 김한일 행정관을 비롯한 원우회 회원 60여 명은 2월 11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포교원장 혜중 스님을 초청해 신년 첫 법회를 봉행하고, 불자들에게 초심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노덕현기자

金仙양생법

“정통 선도의 법만을 지속적으로 전수하여온 금선학회에서 제9기 백일 축기 금선 양생법 특별반을 모집합니다.”

깨달음은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육체는 즉 성명쌍수(性命雙修)수련함으로써 얻습니다.

유불선(儒佛仙)은 다 하나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깊은 공부와 수련을 해도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면 큰 깨달음을 얻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아무리 20년 30년 참선 수련을 해도 우리 육신의 오비(奧秘)와 정신세계의 상관을 알지 못하고는

법륜(法輪)을 얻기는 참으로 힘들고

수련(修鍊)으로 극복 못한 육체의 체내 잡념은 깊은 삼매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이 침잠하여 명경지수(明鏡止水)의 혜명을 여는 공부로 가야 합니다.

◆ 수행 과정 중 주화임마로 상기증(참선으로 인한 부작용), 몸의 불편함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수련인 여러분들을 위한 성명쌍수(性命雙修)수련의 좋은 기회를 경험하여 보십시오.

Table with 2 columns: 수련 일정, 수련 장소, 수련 내용, 자격. Details include dates from Feb 20 to May 31, location at Seunggye, and requirements for participants.

\*\* 금선학회 발전에 국내외 지도자로서 기여코자 하시는 분은 별도 상담바랍니다.

☞☞☞ 금단의 땅으로 구도여행을 떠납니다.

7월 3일 백두산출발 → 태산 → 무당산 → 무이산 → 종남산 → 화산 → 티벳라싸 → 수미산 → 구계왕국 → 네팔카투만두 → 포카라 → 룸비니 → 인도델리 → 아그라 → 라닥 → 다람살라 → 델리 → 서울 → 국내수련 천일을 수련합니다.